개회사

“원자력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님,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제36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자력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原子力’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심화되어 가는 기후 변화는 온 인류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막중한 사안입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친환경,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자력계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전 안전 강화입니다.

원전 안전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차서 표준화와 인적 실수 예방 등 운영 전반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설비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함으로써 기술현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문제 제기하는 문화를 확립해나갑시다.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세계 원자력계가 소형원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계도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화 로드맵을 조속히 정립하고, 소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핵융합로인 ITER와 방사선 분야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원전해체 단계적 사업화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해체 생태계를 육성해나가도록 합시다.

원전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수주 활동도 해야 하겠습니다. 이집트와 루마니아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전력하고, 체코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수주를 위해서 총력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원자력산업계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성원과 지지는 원자력계의 기반입니다.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원자력계가 함께 나섭시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에 적극 나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원자력계는 UAE 바라카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원자력의 안전성과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우리 원자력계는 변화와 성장의 변곡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Passion&Pride,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 이 연차대회가 원자력계의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AIF